

화물연대 파업
무엇을 남겼나

기아차 운송을 담당하는 화물연대 광주지부 카캐리어분회가 24일 밤 운송료 등 협상에 합의하면서 지난 13일부터 진행돼 온 화물연대 파업이 12일만에 완전 종결됐다.

이번 파업으로 광양항과 여수산단이 마비되고 광주지역 주요 수출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경유값이 다시 급등하거나 화물운송 다단계 구조 등 낡은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한 언제든 파업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다단계 운송 개선 더 못미룬다

화주들, 화물연대 협상 대상 첫 인정

◇운송료 협상대상 배경=이번 파업 사태가 비교적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대기업 화주들이 화물연대와 협상에 직접 나섰다 덕이었다.

지난 2003년과 2006년 파업 당시에는 삼성전자가 광주공장, 기아차 광주공장, 금호타이어 광주·곡성공장 등의 대기업 화주들이 화물연대 측을 협상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직접 거래하는 곳은 이들과 계약을 맺은 주선업체나 소규모 운송회사들이기 때문이다.

다단계 구조의 맨 꼭대기에 있는

대기업 화주들은 사실상 파업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었고, 정부는 다양한 압력을 행사해 이들을 협상장으로 불러냈다.

2006년 파업사태를 가장 길게 끌었던 삼성전자가 광주공장이 정부의 협상대상 발표가 있던 지난 19일 전격적으로 협상을 타결시킨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또 금호타이어 광주·곡성공장은 대기업 가운데 유가연동제를 처음으로 인정했고, 기아차 광주공장도 타지역의 협상내용보다 양보의 폭을 넓혔다.

여기에 화물차주들이 화물연대 조합원 비조합원에 관계없이 힘을 결집했고, 파업을 지지하는 국민적 여론이 높았던 것도 화주들에겐 압박 요인이 됐다.

◇남은 과제=물류대안이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종합물류업을 육성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종합물류기업이 성장하면 다단계 하청구조가 사라짐에 따라 화물차 공급 과잉과 운송수수료 부담 등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대형 화주들과 하청 운송사, 화물차주 간의 대화통로가 없는 것도 문제다. 기아차 파업이 길어진 것도 이 같은 이유인데 화물연대 광주지부 카

캐리어분회가 운송료 인상과 함께 글로벌리스→화물연대→운송사가 3자 협체를 구성하자는 협상안 등을 추가로 요구한 것처럼 서로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운송료 인상 부담이 생긴 화주들이 화물차 감차 등을 추진할 수도 있다. 화주들은 유가 인상에 따른 원자재 비용상승 외에도 운송료 인상이라는 짐을 떠안게 돼 결국 구조조정이나 감차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나 다름없다. 표준요금제 도입과 화물연대의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 등 이번 파업에서 풀지 못한 과제들도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다.

/*인원주기자 ahj@kwangju.co.kr

조선대 정이사 선임 지연
학사운영 차질 우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정이사 선임이 지연되면서 조선대가 이사진 공백 등 학사운영에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25일 조선대 등에 따르면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이달 말 임시 이사회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정이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가동된 사학분쟁조정위가 26일 14차 회의를 갖고 조선대 정상화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나 정 이사 선임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대 법인과 대학측은 옛 재단을 배제한 공영형 이사제를 주장하는 반면, 고 박철용 전 총장 일가로 대표되는 구 재단측은 전체 이사 9명 중 개방형 이사 3명을 뺀 6명에 대한 추천권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구 재단측은 "조정위원들이 사학에 부정적이고 편향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며 조정기과 등 사실상 심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의견 조율 가능성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학측은 정 이사 선임이

무산될 경우 긴급사무처리권 발동 등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민법에 규정된 이 처리권은 긴급 처리 사안이 있을 경우 직접 이사를 소집, 안건 처리가 가능하다.

한편 조선대 전호중 총장과 김응재 이사장은 이날 공동 담화문을 내고 "이달 말로 임시이사 임기가 만료돼 이사회 부존재 사태가 초래되고 학사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조속히 정이사 선임을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법인 정상화 심의가 지연되는 것은 대학 구성원과 지역민의 의지에 반하고 공공교육 정상화에도 역행한다"며 "부정부패로 물러난 전 경영진이 또다시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합리적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고 박철용 일가가 운영하던 조선대는 1988년 학내 민주화 투쟁을 거쳐 구 재단이 물러난 뒤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 왔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전남도교육청 인사
일반·기능직 587명

전남도교육청은 25일 일반직 264명, 기능직 323명 등 총 587명에 대해 7월 1일자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도교육청 구제종 총무과장이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해 목포공공도서관으로 전보되는 등 이사관 1명, 서기관 1명, 사무관 4명 등 기능직을 포함한 모두 254명이 승진했다. 일반직 9명, 기능직 53명 등 62명이 퇴직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기아차 수출 재개 화물연대 광주지부와 글로벌리스(주) 간의 운송료 협상이 24일 밤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완성차 수출이 재개됐다. 25일 오전 광주공장 주차장에서 카캐리어차량에 수출용 차량이 실리고 있다. 기아차는 "이날 700여대의 완성차를 목표함으로 옮겼다"고 밝혔다/*인원주기자 ahj@

물고기 500만마리 떼죽음 누구 탓?

양어장 주인 "단전에 집단 폐사"... 한전 "전력 임의 사용 탓"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체납한 양어장에 전기 공급을 중단,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것을 놓고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양어장 주인은 한전의 단전 조치 때문에 물고기가 폐사했다고 주장한 반면, 한전측은 양어장주이 전선을 임의로 연결해 전력을 끌어다쓰는 바람에 발생한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합평을 석성리 우양수산 대표 장주석(46)씨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6시(46)씨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6시 시계 한전측의 단전 조치로 1천900㎡ 규모의 양어장에 산소 공급이 중단돼 감성돔과 농어, 돌돔 등 535만여 마리

가 폐사했다는 것. 폐사한 물고기는 한달 전 입식한 치어에서부터 최대 10cm 크기로 장세는 "시중에서 출하할 경우 13억원대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우양수산은 최근 경기 침체로 전기 요금 203만5천원을 4개월째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제주도 수산업체와 출하 계약을 맺어 판매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며 "한국전력이 관계자를 참석시키고 최후 통첩을 한 뒤 전기공급을 중단했어야 옳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신중순 한국전력 합평지점장은 "3개월 이상 전기요금 체납시 단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전화와 직원 방문을 통해 매달 납부를 독촉해왔으나 내지 않아 불가피하게 단전했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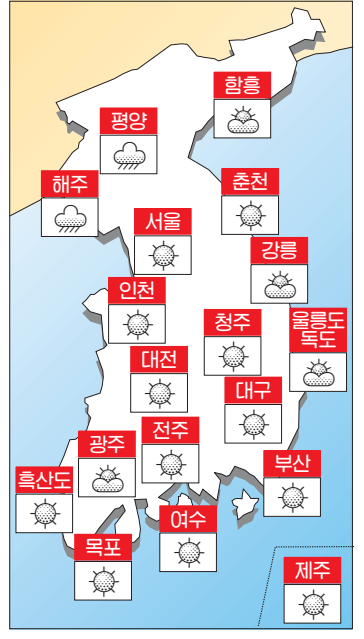
한전 전남본부측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합평지점이 단전한 장소와 치어가 폐사한 곳이 다르다"며 "물고기 폐사는 단전 장소에서 200m 떨어진 곳까지 전선을 임의로 연결해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합평=박영진기자 pyj407@

눈부신 햇살 아래
고기잡이의 영향을 받겠으며 맑겠다.

6월 26일
(음 5월 23일)
◇전국날씨

광주	구름 많음	19~28℃
부산	구름 조금	19~25℃
대구	구름 조금	19~24℃
대전	구름 조금	17~26℃
인cheon	구름 많음	18~29℃
Seoul	구름 조금	17~26℃
Jeonju	구름 조금	17~26℃
Daegu	구름 많음	17~26℃
Ulsan	구름 조금	19~26℃
Gwangju	구름 조금	17~27℃
Daejeon	구름 조금	19~28℃
Seoul	구름 많음	18~28℃
Jeonju	구름 조금	16~22℃



서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0m
남해서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5m
남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1.5m
목포 밀물 < 06:59 썰물 < 12:33
여수 밀물 < 01:37 썰물 < 08:10

▲해돋이 05:20	▲해질녘 19:51	▲달뜨기 12:18				
◇주간날씨 기상내선화: 국번없이 131 < 광주지방기상청 >						
날짜	27(금)	28(토)	29(일)	30(월)	7/1(화)	2(수)
날씨	[icon]	[icon]	[icon]	[icon]	[icon]	[icon]
최저/최고	20/29	21/26	21/26	20/28	20/27	21/29

9월까지 무덥고 습한 날씨

내달 국지성 호우 예상

무덥고 습한 올 여름 날씨에 추가 올인 9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7~8월의 더위가 이어지는 9월은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평년(14~23도)보다 높겠다"고 예보했다.

이에 따라 7~9월 평균기온도 평년 기준인 17~25도보다 높을 것으로 보여 올 여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7~8월에 자주 내릴 것으로 보이는 국지성 호우도 9월 까지 이어지면서 7~9월 평균 강수량도 평년(305~619mm)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7월 초반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잠시 소강상태를 보인 후 하순에는 대기불안정에 의한 국지성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크겠다. 전반적으로 평년(19~26도)과 비슷한 무더위가 예상되지만 산소과 중순에 오호츠크해고기압의 영향으로 일시적 저온현상을 보일 때가 있겠으며, 강수량은 평년(154~345mm)과 비슷하겠다.

8월에도 국지성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크겠으며 강수량은 평년(174~375mm)보다 많겠고, 기온은 평년(19~27도)과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미납 벌금, 사회봉사로 대체 재추진

벌금을 선고받고도 이를 내지 않은 사람이 노역장에 유치되는 대신 사회봉사로 미납 벌금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법무부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벌금 미납자가 노역장이 아닌 사회봉사로 미납 벌금을 대체할 수 있는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 이 같은 내용의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17대 국회가 끝남에 따

라 다시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벌금 미납자가 사회봉사를 벌금 납입의 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한 벌금을 일정액 이하로 한정했다.

법무부는 금액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고려 중이며, 죄질이 무거워 고액 벌금을 선고받았거나 벌금 확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재혼반 10년!

이혼반 10년, 재혼반 10년! 재혼반 10년, 재혼반 10년!

이혼반 10년, 재혼반 10년! 이혼반 10년, 재혼반 10년!

www.527-3388

大山프리모님네가발

최신제품 (70만원)

가발

초슬림!!

www.527-3388